

'주 52시간' 영세 전문건설업체도 타격

적용 대상 아니지만 원청 관리자 퇴근하면 공사 못해 하도급 계약금액 그대로 공사기간 늘어나 지출 커져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아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이 아닌데, 적용 대상인 원도급사의 관리자가 퇴근하면 당담이 퇴근해야 해요. 관리자가 없으면 공사하다가 사고 나면 감당할 수 없잖아요."

광주·전남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아우성이다. 대다수 전문건설업체들이 규모가 작고 영세해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은 아니지만, 원도급사가 적용을 받는 탓에 불똥이 튀고 있다. 원도급사 관리책임자가 52시간 근무로 오후 6시 퇴근하면, 그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하도급사 직원들도 함께 퇴근해야 한다. 감독·관리자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월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지회에 따르면 300인 이상 인력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개선이 안 되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파장이 큰 업종은 건설업계다.

현장에 따라 인력이 뜰까봐 걱정인데, 산업 연관성이 크기 때문이다. 날씨 제약도 받는다. 여름 장마철과 무더위, 겨울 폭설

과 강추위 때는 공사를 할 수 없다. 건설업계는 날씨가 좋은 때 공사를 집중해야 하는데 주 52시간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했다. 다만, 최근 노사정 합의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늘어나 한숨 돌린 상태다. 탄력근로제는 작업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광주·전남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 받는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은 5~6곳, 전문건설업은 20여곳 정도로 추정된다. 광주·전남 전체 업종에서는 총 134개로 파악됐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세방전지 등 98개사, 전남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36개사다.

문제는 300인 이하 전문건설업체다. 하도급을 받은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공사기간이 경쟁력인데, 주 52시간 근무로 경쟁력이 상실된다는 주장이다. 인건

비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원도급사가 하도급 공사비용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지체 보상을 해야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전문건설업체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불멘소리로 찾아들지 않고 있다.

일시적으로 주문이 몰리면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서다. 그렇다고 일시적인데 인력 충원을 할 수도 없고, 신규직원을 채용하려 해도 눈높이가 높아 직원 구하기도 쉽지 않다. 줄어든 시간만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부담스럽다.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감소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초과수당과 특근수당 등이 빠지면 당장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탓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203.27 (+26.09) ↑ 금리(국고채 3년) 1.72 (+0.01)
- ↑ 코스닥 749.30 (+9.78) ↓ 환율(USD) 1134.30 (-2.10)



한전 '전력데이터 활용 신서비스 개발' 우수작품 시상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지난 28일 서울시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전력데이터 활용 신서비스 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전의 전력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11일 경진대회 공모를 시작으로 1차 서류심사를 합격한 23개 참가팀은 한전에서 제공한 전력데이터를 활용해 1개월의 개발기간을 거쳐 신서비스를 개발했고, 최종심사에서 PT발표와 개발 프로그램 시연을 통해 9개 팀이 수상했다.

최종 선정된 팀은 한전의 에너지마켓 플레이스인 EN:TER에 해당 서비스를 등록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숙련 기술인들의 축제 광주·전남 기능대회 개막...70대 참가 눈길



광주기능경기대회 요리분야에 참가 선수들이 3일 광주자연과학고에서 실력을 겨루고 있다. <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 제공>

광주·전남 숙련기술인들의 축제인 광주·전남 기능경기대회가 3일 개막했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 350명·전남 344명이 출전, 38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룬다. 광주는 광주공고 등 8곳에서, 전남은 순천공고 등 7곳에서 오는 8일까지 6일간 경기를 치른다.

광주 대회에는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마옥천 베비에르 대표의 아들이 대를 이어 제과제빵 분야에 출전하고, 73세 남성은 목공예 분야에서 실력을 뽐낸다.

입상자는 오는 10월 4일부터 8일간 부산에서 열리는 제54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광주·전남 대표선수로 출전한다.

김대수 광주기능경기대회 운영위원장은 "대회 수상자는 채용으로 곧바로 이어지고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시험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선 취업-후 학습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며 "우수한 숙련기술인재들의 열정을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주택사업 "여전히 어렵다"

주택산업연구원 4월 전망치 소폭 상승 불구 기준선 밑돌아

광주·전남 주택사업 경기가 전월보다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4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73.6으로 전월보다 4.4포인트 상승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는 81.4, 전남은 68.4로 전월(광주 74.2, 전남 64.0)보다 각각 7.2포인트, 4.4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돌아 부정적인 전망이 더 많았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이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

대를 의미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수도권과 광주·대구·대전 등을 중심으로 소폭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주택사업자가 체감하는 주택사업경기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는 자가가 상승하고 미분양 증가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사업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는 분석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 3월 HBSI 실적치는 광주 75.0, 전남 61.9로 전월보다 광주는 5.0포인트 하락하고, 전남은 5.9포인트 올랐다.

이달 재개발·재건축 주수 전망은 재개발 94.1, 재건축 88.0을 기록했다. 특히, 재개발 주수 전망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로 지난해 2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90선을 회복했다.

자재수급·자금조달·인력수급 전망치는 각각 96.2, 84.7, 97.7로 올해 들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선에 못 미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중기청 '중기 기술개발사업안내서' 발간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모은 '2019 광주전남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안내서'를 발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종합안내서는 지난 2월 수출지원사업 종합안내서를 발간한 것에 이어 지역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후속 제작이다.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및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지역소재 지원기관의 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 제작됐으며, 지원기관, 분야, 조건, 내용, 시기 등이 수록돼 있다. 주요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의 국가기관과 광주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등 33개의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188개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이다.

신규 공고사업 및 변경된 사업을 수정·보완해 분기별 배포할 예정이며, 해당 자료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https://www.mss.go.kr/gwangju)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산은, 아시아나 재무구조개선 약정 1개월 임시연장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과 맺은 재무구조개선 약정(MOU)을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산은 등 채권단과 아시아나항공의 MOU는 지난해 4월 6일 맺어져 오는 6월 만료될 예정이다.

산은은 MOU의 1개월 연장에 대해 "금호아시아나 측이 제출할 예정인 자금 계획을 검토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은 "MOU 만료에 따른 관리수단 부재 등에 관한 시장의 우려를 감안, 새로운 MOU를 재체결할 때까지 임시로 기존 MOU를 내용 변경 없이 1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채권단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선로 걱정없는
엘리형 태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